

## 5·18문학상 신인상 시 부문 심사평

5·18의 의미는 무겁고 숭고하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가, 시라는 매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5·18문학상 신인상엔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5·18문학상 신인상의 심사는 심사위원에게도 남달랐다. 응모작들에 공감하고 그렇기에 더 오래 들여다보며 지낸 시간은 각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번 신인상에 응모된 작품 중 상당수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직 해야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많다는 것은 반가웠다. 그러나 기억을 시로 옮기며 지난 일을 단순히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격앙되거나 감상에 빠져 시적 미학을 벗어나 슬로건이 되진 않았는지는 고민해야 한다. 5·18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목소리를 잊어버리진 않았는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어떻게 우리의 '진심'을 시를 통해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결국 응모작들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논의 끝에 한 사람의 시인이 남았다. 당선자의 응모 작품은 고른 완성도를 보였다. 그의 시 중에서 어떤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할지 더 논의되었다. 최종까지 고민한 당선자의 두 작품은 각각 다른 장점이 있었다. 「복화술사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아이」는 5·18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바탕으로 쓰였다. 소재가 실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의 시였다. 역사적인 한 장면을 친숙하고 현장감 있는 언어로 풀어내면서 특별한 감동을 자아낸다. 「봄동」은 흐린 봄의 풍경이 80년 광주의 분위기로도 읽히는 비유적 시였다. 웅변적인 진술 없이, 선명한 정황 표현만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여운을 남긴다는 점이 다른 응모작들과 비교됐다. 5·18이라는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살뜰하고 담담한 언어의 사용도 시를 빛나게 한다.

무엇보다 두 편의 시는 관념적인 단어 없이 광주라는 거대한 과거, 영원한 오늘을 기록했다. 시적 완성도를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고민 끝에 결국 두 편의 작품 모두 당선작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응모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더 많은 광주를 기록해 나가길 바란다.

2022년 4월 21일

2022 5·18문학상 신인상 시 심사위원

권민경, 신용목